

문화와 전통이 함께 숨쉬는 전자단지, 동북아의 무역· 물류 중심도시 수원·평택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단지 및
기아자동차등이 있는 수원, 화성과 더불어 동북아· 중국의 무역·
물류 중심으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만 등이 있어
산업의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내·외적으로도
각광받는 최적의 산업단지를 소개한다.

수원·평택의 산업구조

수원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도시이다. 수원성도 그중 하나이다. 문화의 도시라 불리는
반면 산업시설이 잘 어울어진 도시 또한 수원이다. 수원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것도 이
를 대변한다.

수원을 비롯해 인근 화성, 용인까지 21세기를 이끌어 갈 도시로 첨단과학기술도시, 지식
정보산업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도시와 함께 도시근교 농업의 진흥을 통한 선진국 수준
의 경제과학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에는 서해시대를 맞이하여 대단위 산업단지의 조성 및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유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어 평택·안성으로까지 기업집적 입지 기반을 마련
하고 있다.

산업단지로는 수원에 위치한 전자·전기 등의 삼성전자단지와 화성 우정면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의 메카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단지, 화성 향남면에 위치한 향남제약단지, 평
택 포승면에 위치한 포승국가공업단지 및 안성 1·2공업단지를 비롯해 최근 들어 단지조
성 작업중인 화성지방산업단지, 발안지방산업단지, 금의지방산업단지 등 어느 지역보다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어, 최근에는 지역내 사업체수와 함께 근로자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2002년도의 36,763개소에서 2003년도 42,897개소로 급
속히 증가하여, 재해율이 1.10을 나타내고 있고, 수원지역내의 전체 재해율은 0.72를 보이
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관할인 수원, 화성, 용인, 안성, 평택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의 활동이 눈에 띈
다.



민간재해예방단체인 안전협회 수원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재해율이 0.42로 현저히 낮아 지역산업안전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안전협회 수원지회에서는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역 산업사회의 숨은 일꾼 안전인

수원, 평택, 용인, 화성 등의 지역에는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내 제일의 기업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이번에 찾은 안전인은 크지 않은 기업에서 자신의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는 숨은 일꾼 안전인을 찾았다.

<<신동방의 유노열 안전차장>>

21세기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문화 개선과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기업, 주식회사 신동방을 찾았다.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이란 말처럼 쉽지 않으나 이곳 신동방 수원공장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유노열 안전차장에게 들어본다.

84년에 신동방에 입사하여 96년부터 이곳 안전업무를 수행한 유노열 차장은 이곳의 안전 교육과 공정의 정비 작업을 이야기한다. 먼저 안전교육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전활동이라고 말한다.

유노열 안전차장이 직접 교안을 만들어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든 안전활동에 있어 가능하면 손수 나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전문 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유노열 안전차장은 이곳의 모든 공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료 공정의 특성상 구동 컨베이어와 믹서기의 청소작업시 많은 위험 요소가 내포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이에 이곳에서는 안전조치가 되지 않으면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않은 만큼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모든 작업은 2인 이상 공동작업으로 수행되고, 작업전 짧은 미팅을 통해 위험작업을 숙지하고, 임의 작업을 못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 설비 중 믹서기는 모든 원료가 액상 원료이기 때문에 1주일에 1회 정도 청소를 해야 한다. 이 때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터록 장치와 함께 록아웃 테크아웃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의 처음



▲ 유노열 차장

부터 마무리까지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작업은 근로자의 출입이 없는 휴일에 실시하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효율 정책을 펼친 결과 83년도 이후 중대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2002년도 초부터 아직까지 무재해를 달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내외적으로 안전업무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유노열 차장은 최근 규제완화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말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은 중소기업 현장에 자율안전을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의 이유이다.

끝으로, 유노열 차장은 가정이 건강하면, 직장이 안전하고, 산업사회가 안전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며, 갑신년에는 가정에서부터 안전이 시작되어 무사고, 무재해의 신동방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전 신성건설의 명성을 이어간다〉〉

신성건설(주)는 건설활동을 통해 쾌적한 삶의 터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준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신성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특별하다. 건설회사 중 안전직 인력을 최초로 채용한 기업, 안전관리부가 처음 만들어진 기업,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이 최초로 있는 기업 등이 그 중 하나이다.

오늘 찾은 곳이 신성건설(주)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다. 용인 도로현장(김진교 소장)이 바로 그곳이다. 2002년 6월에 착공하고 2005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이 현장은 착공 이래 현재까지 무재해를 달리고 있고, 무재해 준공을 목표로 모든 직원, 현장 근로자들이 하나가 된다.

근로자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옥외공사시 주민의 안전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진교 소장을 필두로 무재해 현장으로 꾸며가고 있다.

용인 도로현장에는 어떠한 안전을 펼치고 있는지 정래성 안전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90년 7월 신성건설에 입사한 정래성 과장은 이전에 제조 대기업에서의 안전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래성 과장은 이에 대해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이 곳이 자신에게 맞다고 평한다.

그렇다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업무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우리 나라 90



▲ 정래성 과장

년의 건설안전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안전은 안전관리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시대이며 이러한 생각은 제조업보다 건설현장이 더욱 강했다. 그러나 정래성 과장은 제조업의 시스템 업무를 건설현장에 접목시켰다. 특히, 일본의 JS를 도입하여 TQC에 도전했던 경험이 정래성 과장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수상경력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까? 완벽을 추구하는 정래성 과장의 첫인상에서도 빈틈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철저함은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근로자의 음주, 과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입구에 설치한 평균대를 지나가도록 하여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현장 출입을 금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혈압계를 비치하여 최근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부분은 90년 중반부터 이중, 삼중의 안전을 시스템화한 겹겹이 안전과, 근로자의 계몽, 깨끗한 현장 등의 시각적인 안전활동이 인상 깊다.

몇일 앞두고 2004년을 맞이한다. 새해 갑신년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공정이 진척되는 해이다.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이다. 이에 정래성 과장은 “나를 희생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확보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안전관리를 전개할 것이며, 신성건설은 2004년 산업안전대상에 도전하는데 이곳 현장이 선봉장 역할을 한다는 굳은 의지를 표한다.

끝으로, 신성건설이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는데 이곳 현장이 앞장설 것과 무재해 준공을 기원한다.

재난방지시스템

경기도 소방본부 및 경기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노래를 통한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전국 119 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2003년도가 5회이다. “119 대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도전 119” 체험코너(화재진압 및 구조·대피요령 등 현장체험) 사진 유물·장비전시관 전시, 불조심·구조·구급대 활동 등 안전의식 그림 그리기 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 119 소방활동 및 재난관련 영화 상영, 소방게임(안전퀴즈·수관볼링대회) 119 캐릭터 페인팅 및 마술시범, 119 체험 추억사진 만들기, 119 사이버 게임장, 소방악대 연주회, 하계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으로 개최된다. 

〈최종덕 기자〉

